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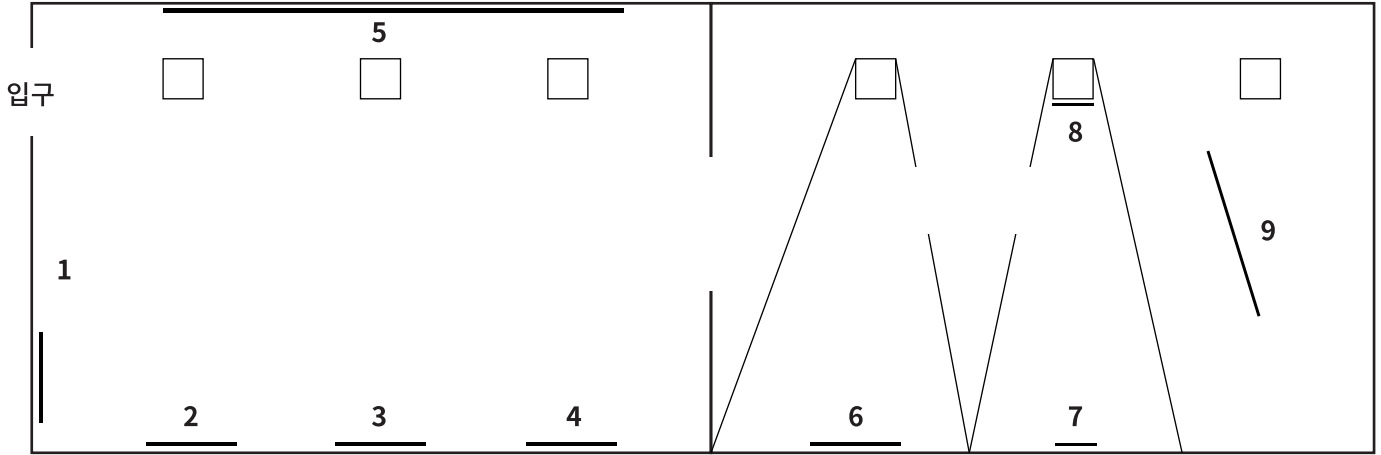
주최, 주관 : 시안미술관
 후원 : 한국문화예술위원회
 기획 : 스테어스

보통의 시선

2018. 7. 6 - 9.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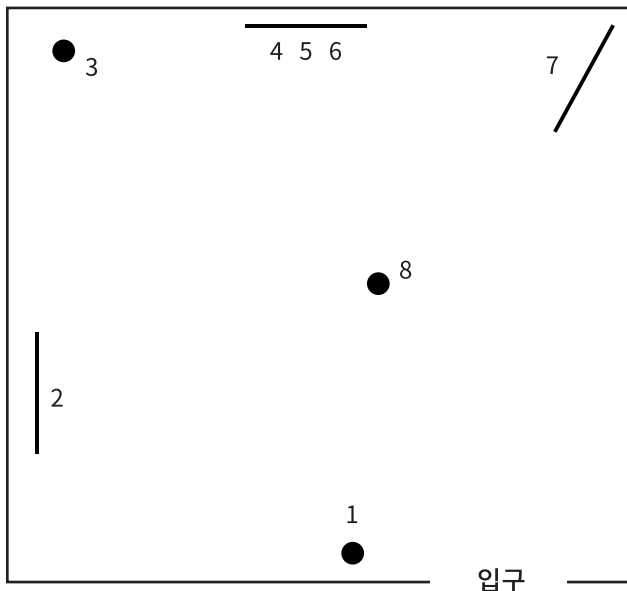
참여작가
 강민영, 김영훈, 송수영
 신준민, 이채영, 정 욱

1F - 신준민, 강민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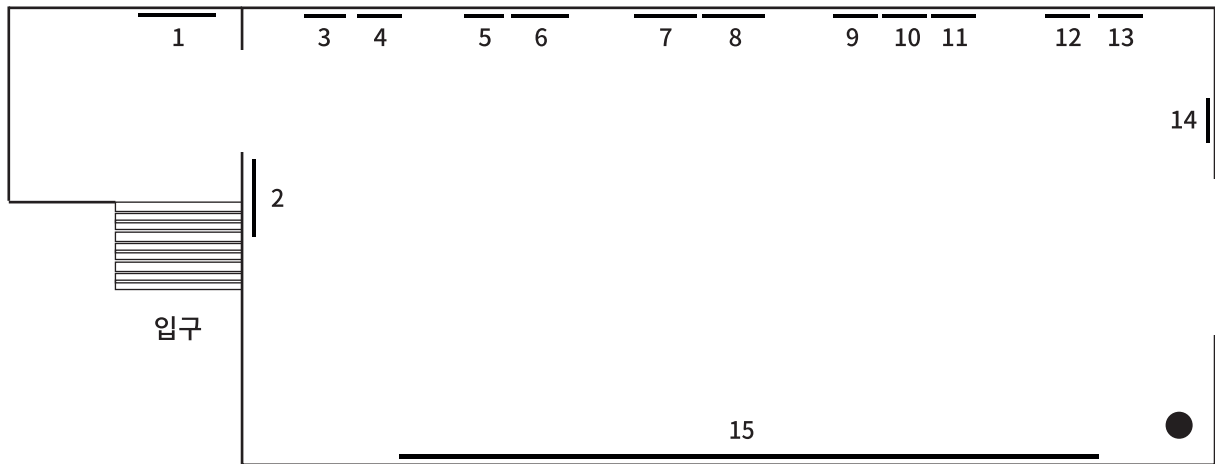
1. 신준민_White wind_oil on canvas_181x227cm_2017
2. 신준민_White River_oil on canvas_181x227cm_2018
3. 신준민_Pink Mountain_oil on canvas_181x227cm_2018
4. 신준민_White Stone_oil on canvas_181x227cm_2018
5. 신준민_Blank #1~18_oil on canvas_45.5x37.9cm_2018
6. 강민영_Perspective_oil on canvas_190x100cm(변형)_2017
7. 강민영_겹_oil on canvas_53x99cm_2018
8. 강민영_겹_oil on canvas_53x33cm_2018
9. 강민영_겹_oil on canvas_22x27cm(25ea)_2018

2F - 송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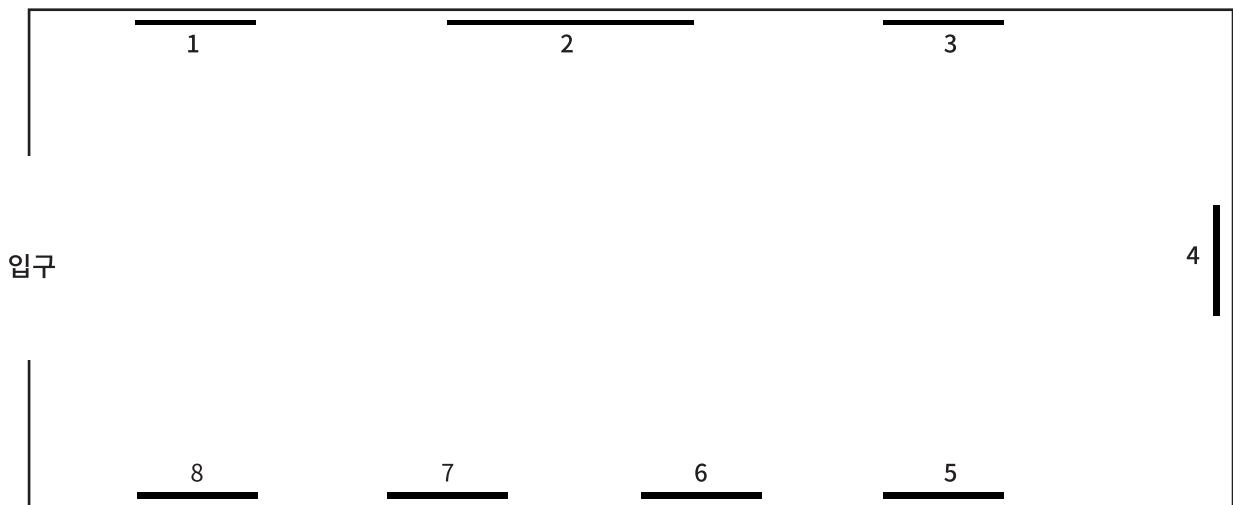
1. 송수영_비닐풍경-플라타너스_60x60x20cm_2017
2. 송수영_책-숲_30x30x25cm_2012
3. 송수영_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으로 쓴 시_20x20x20cm_2009
4. 송수영_젓가락-나무_15x10x10cm_2010
5. 송수영_이쑤시개-풀_10x10x10cm_2010
6. 송수영_면봉-꽃_10x10x10cm_2010
7. 송수영_대결레-나무_130x30x25cm_2017
8. 송수영_가족자켓-양_70x60x30m_2010
9. 송수영_비닐풍경-잡초_60x60x20cm_2017

3F - 김영훈, 정욱



1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13(2018)_inkjet print_120x80_2018
2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23(2014)_inkjet print_30x50_2018
3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17(2014)_inkjet print_16x25_2018
4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01(2015)_inkjet print_23x35_2018
5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19(2017)_inkjet print_50x75_2018
6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20(2016)_inkjet print_100x150_2018
7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07(2018)_inkjet print_120x80_2018
8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05(2017)_inkjet print_50x75_2018
9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24(2017)_inkjet print_50x75_2018
10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10(2015)_inkjet print_30x30_2018
11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22(2016)_inkjet print_50x75_2018
12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03(2015)_inkjet print_40x40_2018
13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02(2017)_inkjet print_80x120_2018
14. 김영훈_나는 가만히 서(恕) 있었다. still14(2017)_inkjet print_75x50_2018
15. 정욱_일상의 이면_installation_50x15cm_2018

3F - 이채영



1. 이채영_15시_한지에 먹_91x162cm_2014
2. 이채영_낮달_한지에 먹_90x320cm_2015
3. 이채영_외딴 섬_한지에 먹_90x162m_2015
4. 이채영_섬_한지에 먹_132x162cm_2017
5. 이채영_섬_한지에 먹_132x162cm_2016
6. 이채영_섬_한지에 먹_132x162cm_2016
7. 이채영_어떤 약속_한지에 먹_132x162cm_2015
8. 이채영_벽_한지에 먹_130x162cm_2016